

## 부산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 부산시민공원

사람과 사람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산시민공원. '100년의 기다림, 영원한 만남'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부산시민공원이 무려 100년간 한국 속 이방인의 공간으로 숨쉬던, 우리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었다.

### 송상현 광장

길이 700m, 폭 45~80m, 면적 3만4천740㎡, 국내 도심광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 광장은 역사 마당, 다이내믹 부산마당, 문화마당으로 조성되었으며 송상현공 동상, 역사의 숲, 고지도 바닥분수 등 설치됐다. 또 잔디광장, 화강암판석 광장, 산책로 데크, 바닥분수, 실개천 조성, 그리고 상설문화장으로도 활용 될 선큰광장과 잔디 관중석(비)이 있다.





## 新의식문화-광안리 해수욕장의 中心!!

### GUESS WHO? 는

1991년 4월 9일 오픈한 전통있는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광안리 바닷가 테마거리 중앙에 있으며,  
 광안대교가 다 보이는 야경과 이국적인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부산의 명물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항상 타 업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근성을 가진 직원들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 전통의 맛을 오래도록 지키며  
 항상 시대에 걸맞는 멋진 맛집으로서 항상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식과  
 아늑한 휴 분위기를 일품입니다.  
 항상 5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맛과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GUESS WHO?

COFFEE & PIZZA FAMILY RESTAURANT

3F	2F	1F	3F	1F
노래찾는사람들	日式 <b>긴자</b>	<b>GUESS WHO?</b>	Song of Joy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삿뽀로하루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00-1번지  
 Tel. 051)757-1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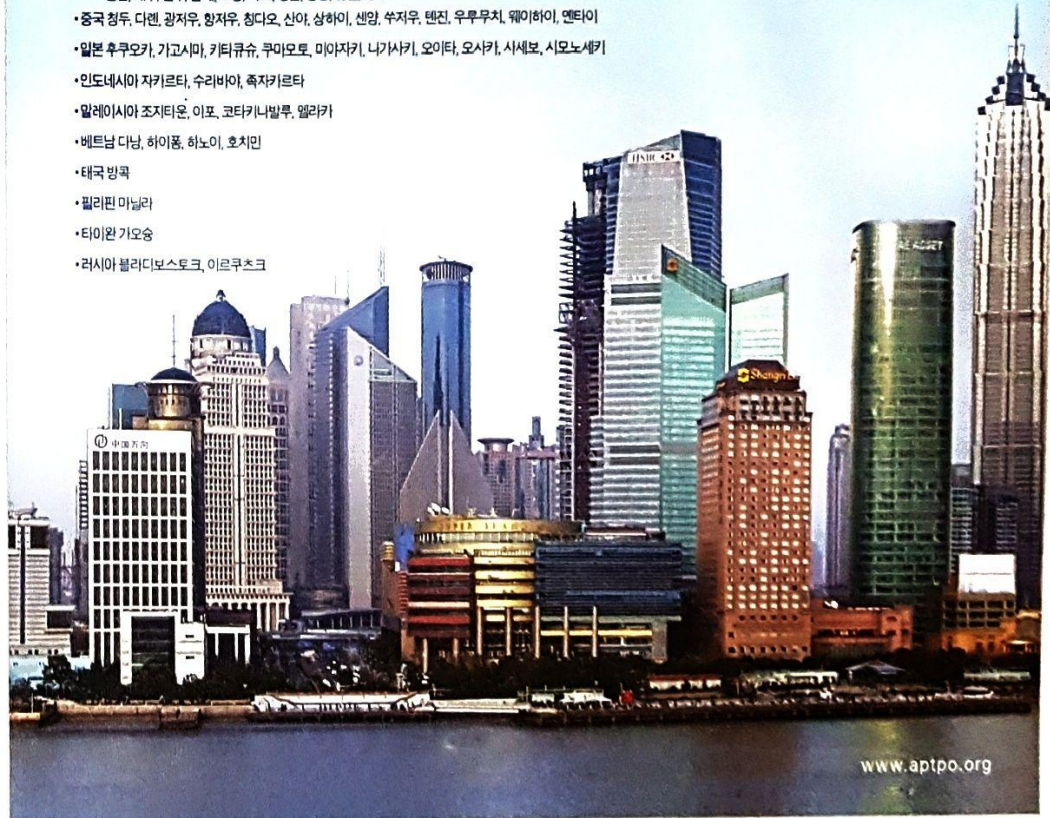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신아, 상하이, 셴양,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가고시마, 키타큐슈, 쿠미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시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발행·편집인 이대섭  
 편집위원 손해석, 이만규, 김중규, 이혜원, 김병오  
 편집국장 박성희  
 취재기자 이효연 (1개년제), 이민지 (휴일기자)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등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조광동 589-2  
 TEL. 1051463-3111 463-3080 FAX. 1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동관동4가 18-8번지 2층  
 TEL. 1051463-3563 FAX. 1051463-8062  
 E-mail: dt@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1051463-3563  
 http://www.bomoon.kr



표지\_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관광

- 05 부산역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뽑혀
- 06 부산 I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벵스코에서 개최
- 08 일본·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외국인 팬투어 줄이어
- 09 중국 텐진 장저우 CCTV 방송사 등세계각지 팬투어 참가단 부산을 찾았다
- 10 부산의 4개 해수욕장이 6월 1일 개장, 9월 10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한다
- 11 부산시티투어버스, 광안대교·부산항대교 운행
- 12 부산 스마트관광 홈페이지 운영
- 13 세계 3대 디자인 박물관 부산에 세운다
- 14 국내 최대 도심광장 '송상현 광장' 개장
- 15 부산시민공원 '도심 속 명품공원'이란 명성에 걸맞게 야간경관도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
- 16 자갈치·다대포 연안, 시민·관광객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공원으로 변신
- 17 부산항대교 안전, 경관 갖춘 다리로 관광자원 활용기치 높아
- 18 관광객 많이 찾는 산복도로, 힐링·도보여행 4개코스 운영
- 19 부산 범일동에 '이중섭 풍경거리' 준공
- 20 근대역사 원도심 골목투어 상품 코스개발
- 21 광안리해변 차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
- 22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
- 23 '더 알차고 더 풍부하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 24 미래의 잠재적 가치 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에 관심기져야
- 25 선진국들의 농촌관광 활성화 벤치마킹 필요
- 27 여행사·관광통역 안내사 간 표준약관 제정·보급
- 28 부산시 우수 관광상품 인증마크 받을 여행사 3곳 선정 부여
- 30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개최기념 제6회 부산관광 UCC전국공모전
- 31 호텔기소식
- 32 6.25특집 |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휴전선 155마일 DMZ, '전원 뜻밖의 여행길' 고성을 가
- 34 6.25특집칼럼 | 6.25·영도다리 그리고 민족음악가 채동선
- 36 관광 중시자의 이미지
- 37 부산관광안내
- 38 슬로시티투어
- 39 테마별 코스
- 40 부산시티투어버스 은행코스

## 부산역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뽑혀

### 문화, 예술, 관광, 마이스, 콘텐츠, 디자인 등 지식자본 교환 장소로 활용

부산역 일대가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뽑혔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국비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 등 총 500억원을 들여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중앙로~부산역~북항을 잇는 광장형 연결데크 설치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구축에 힘쓴다.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을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지정했다. 충북 청주시의 '싱딩구 폐공장 부지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 구축사업'과 함께다.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 86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막대한 사업비와 함께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 전문기관의 행정·기술적 지원도 함께 한다.

부산시는 부산역 일대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초량동 산복도로에서 중앙로를 거쳐 부산역과 북항에 이르는 대규모

광장형 연결데크를 조성, 산복도로에서 바다까지 단절을 없애 누구나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한다. 광장형 연결데크 디자인은 국제공모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원도심 관문지역, 차이나타운~초량시장 일원을 원도심상업지역, 초량 산복도로 일대를 원도심 주거지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사업을 펼친다.

원도심 관문지역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과 청년들이 모여 문화, 예술, 관광, 마이스, 콘텐츠, 디자인 같은 지식자본을 교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 기반을 갖춘다. 이를 위해 부산역을 단순 교통시설이 아닌 상업지원시설, 공연·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재생시설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원도심 상업지역은 세계인이 모여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다문화 융·복합형 열린 시장으로 되살린다. 원도심 주거지역은 폐·공가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도시농장, 산복도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시설을 세워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킨다.

김우용 리포터





# 부산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벅스코에서 개최 3주간 관광증대효과 933억원, 불꽃축제, 국제영화제 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 될 것 기대

## UNIPOTENTIARY 2014



오는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UN)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벅스코에서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산 ITU 전권회의' 행사 기간 진행되는 특별행사, 의제준비 현황 등을 발표했다. ITU전권회의는 193개 회원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장관들이 참석하는 ITU 최고위 의사결정회의로 사실상 일반인들이 행사장에 접근할 수 없는 행사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ICT 관련 대규모 전시회와 콘퍼런스, 체험행사 등을 마련했다.

전권회의가 열리는 1주 차에는 '월드 IT 쇼' '모바일 360' '5G 글로벌 서밋' '빅데이터 월드 콩그레스' 'U-클린 콘서트'가 열린다. 10월 2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월드 IT 쇼'에는 곡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접하는 OLED 기술 등을 개발한 국내 학계와 연구계가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 최신 스마트폰도 해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360'은 전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동통신분야 글로벌 콘퍼런스 모바일 커머스, 근거리무선통신(NFC), 롱텀에볼루션(LTE) 등의 행사로 꾸며진다. '5G 글로벌 서밋'도 2020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계획을 세운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행사다. '빅데이터 월드 콩그레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 미

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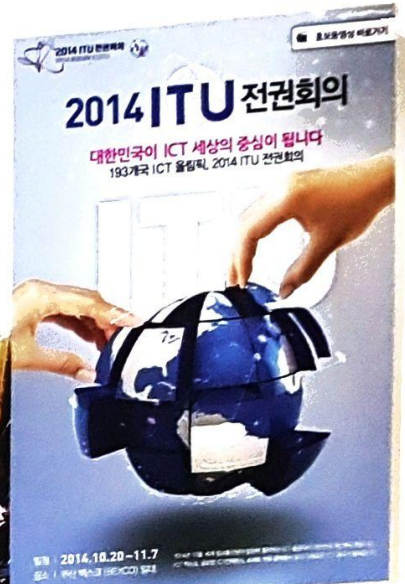
2주 차에 진행되는 행사 중 '헬스·IT 융합전시회'에서는 디지털병원, U-헬스, 바이오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이 전시되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연구·개발(R&D)사업 성과와 디지털병원시스템, 스마트홈케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밖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전문 전시회인 '클라우드 엑스포', 전 세계 300명의 실내 위치인식·항법 전문가가 참석하는 'PIN 콘퍼런스', 아시아 최대 전자문서 콘퍼런스인 'U-페이퍼리스 콘퍼런스'도 열린다.

### 호텔롯데 등 ITU 전권회의 공식 숙박업소 지정

미래부는 전 세계에서 3000여 명이 이반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외국어 응대·편의시설·위생상태 등에서 합격점을 받은 21개 호텔의 2500여 개 객실을 확보했다. 해운대 지역의 특급호텔을 비롯해 호텔롯데부산, 코모도호텔, 토요코인 부산 등이 ITU 전권회의 공식 숙박업소로 지정됐다. 이들 호텔은 전권회의 참가자를 위한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객실 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각 호텔에서 회의장이 있는 벅스코까지 셔틀버스도 매일 운영한다.

미래부는 또 부산외국어대와 협약을 맺고 외국어 우수인력을 선발해 행사기간 참가자 안내 및 의전 지원 등의 업무를

## 2014 ITU 전권회의



지원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산대·동아대 병원 등 부산지역 6개 의료기관과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119구급대와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ITU 전권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1994년 일본 교토 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된다.

10월 20일~11월 7일 부산 벅스코 일대에서 열리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는 193개국 장관급 150여명, 회의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해 3주간 본 회의와 분과위원회, 사무총장 등 고위선출직 및 이사국 선거 등을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행사 기간 ICT(정보통신기술) 엑스포, 스마트 한류문화 행사 등 특별행사와 ICT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인과 석학들이 초청되는 글로벌 ICT 회의 등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부산으로서는 2004년 ITU 아시아 텔레콘, 2005년 APEC TEL(정보통신그룹) 정상회의에 이어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하는 ITU 전권회의에서 부산 결의안이 채택돼 부산이 세계 ICT 분야의 허브 및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추정으로는 ITU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7118억 원이다. 회의 개최에 따른 직접 효과는 1407억 원, 관광 증대 효과는 933억 원, 전자정

부 등 해외 진출 효과는 1178억 원, ICT 강국 홍보에 따른 수출지원 효과는 3600억 원이다.

특히 관광 증대 효과는 오롯이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몫이고, 3주간 부산을 찾는 각국 대표단들이 회의가 열리지 않는 주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효과는 예상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10월은 불꽃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BIFF) 등이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ITU 전권회의 참가자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은 "이 기간 중 열리는 다양한 특별행사를 통해 한국의 역동적인 ICT 산업과 아름다운 전통문화, 부산의 지역적 특색이 다양하게 버무려져 참가자들에게 각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해식 편집위원

### ◇2014 ITU 전권회의 특별행사 일정(10~11월)

행사	일정
ICT 엑스포	2014년 10월 20일~23일
글로벌 ICT 컨퍼런스	2014년 10월 22일~11월 6일
스마트 한류문화행사상사	2014년 10월 20일~11월 7일



# 일본 · 인도네시아 · 나이지리아...외국인 팸투어 줄이어

나이지리아,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부산 알기' 외국인 팸투어(사전답사여행)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6월8일 부산시 자매·우호협력도시 6개국 18명이 부산에서 국제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는 태국 방콕, 필리핀 세부주, 베트남 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미얀마 양곤 관계자가 참여해 부산의 선진분야인 상·하수도, 해양, 항만 현장을 돌며 심층연수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프랑스 팸투어단은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수많은 기적을 품은 나라, 한국'이라는 주제의 다류를 촬영하러왔다"며 "한불 상호교류의 해인 내년 부터 프랑스는 물론 독일 일부 지역까지 방영할 예정이라 부산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5~18일 3박 4일 일정으로 부산을 다녀간 인도네시아 팸투어단은 '남포동 시장에서 할랄음식 찾기'라는 독특한 주제로 투어를 진행했다. 할랄음식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축·생산·가공돼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게 허용된 음식을 말한다. 팸투어단은 부산의 할랄음식 제조시설과 이슬람사원 등 무슬림들이 관심 있어 할 장소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다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의 약 87%인 2억 명이 무슬림이다.

또한 지난달 14~17일 부산을 방문한 일본 나고야지역 여행사 관계자 9명은 발효문화학교 '연효재'를 찾아 막걸리팩 만들기 체험을 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산업시찰 팸투어단 49명은 지난달 14~16일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두 다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량시설과 접속도로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는 후문이다.

또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 모스크바 팸투어단은 지난달 9~11일 양산부산대병원, 강동병원, 버드나무한의원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부산 주요 의료기관과 관광지 답사를 통해 부산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 밖에 중국에서는 텐진, 정저우, CCTV 방송사 등에서 모두 3팀의 팸투어단이 차례로 부산을 찾아 부산의 스마트관광시스템과 크루즈관광 인프라 등을 둘러봤다.



## 관광객 편의 위해 관광경찰대 본격활동

### 7월부터 크루즈터미널 등 관광지서 범죄 예방활동

오는 7월부터 부산을 찾은 외국인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는 부산관광경찰대가 활동에 들어간다. 부산광역시·부산경찰청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관광경찰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35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과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일본어·중국어 능력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다. 관광경찰대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산김해국제공항과 크루즈터미널 부산역, 주요 관광지, 전통시

장 등에 집중 배치돼 활동한다. 각종 관광지 범죄 예방과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수사 같은 치안 서비스 및 여행정보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부는 항만관리사업소(서구 남부민동)에 두고, 치안센터는 해운대(중1동), 광안리(광안4), 광복동(창선)에 3곳을 운영한다.

# 중국 텐진, 장저우 CCTV 방송사 등 세계각지 팸투어 참가단 부산을 찾았다

중국 텐진, 장저우, CCTV방송사 등 세계 각지에서 부산을 찾은 팸투어(사전답사여행) 참가단이 지난달에 9팀이 부산을 찾았다. 6박 7일 일정으로 부산에 머문 프랑스 취재진의 경우 '문화의 나라'에서 온 손님답게, 부산지역 등에서 스케치해 카메라에 담았다.

또 "문화예술 전문 방송사인 '아르테'가 오

는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수많은 기적을 품은 나라, 한국'이라는 주제의 다류를 촬영하러 왔다"며 "한불 상호 교류의 해"로 지정된 내년부터 프랑스는 물론 독일 일부 지역까지 방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부산을 다녀간 인도네시아 팸투어단은 '남포동 시장에서 할랄음식 찾기'라는 독특한 주제로 투어를 진행했다. 할랄음식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축·생산·가공 돼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게 허용된 음식을 말한다. 팸투어단은 부산의 할랄음식 제조시설과 이슬람사원 등 무슬림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장소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다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의 약 87%인



세계 각지에서 부산을 찾은 팸투어단이 부산을 찾았다. 나이지리아 팸투어단. 부산시 제공

2억 명이 무슬림이다. 지난달 14~17일 부산을 방문한 일본 나고야지역 여행사 관계자 9명은 발효문화학교 '연효재'를 찾아 막걸리팩 만들기 체험을 했다. 팸투어에 참여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 막걸리와 화장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며 "영도대교 도개 관광과 감천문화마을 방문 등도 일본

인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라고 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산업시찰 팸투어단 49명은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두 다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량시설과 접속도로 등을 꼼꼼히 둘러보고 갔다.

또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 모스크바 팸투어단은 양산부산대병원, 강동병원, 버드나무한의원 등을 방문했다. 올해 한-러 무비자 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의료관광협회가 모스크바 정부 관계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11명을 초청해 열린 행사다. 이들은 부산 주요 의료기관과 관광지 답사를 통해 부산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 밖에 중국에서는 텐진, 정저우, CCTV 방송사 등에서 총 3팀의 팸투어단이 차례로 부산을 찾아 부산의 스마트관광시스템과 크루즈관광 인프라 등을 둘러봤다.

김대현 객원기자





## 해운대 · 광안리 · 송도 · 송정 등 부산의 4개 해수욕장이 6월 1일 개장, 9월 10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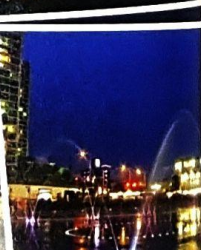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이벤트 광장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해수욕장 관리 종사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광안리해수욕장은 갈대 파라솔과 선텐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존과 모래텔이 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다양한 해변 행사를 연다. 개장 기간에 해변 거리 음악회, 아트마켓, 조개잡이 체험, 물총축제 등을 개최하며 새롭게 정비된 광안대교 LED 경관조명과 레이저 쇼도 선보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학생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송정해수욕장은 아영장을 조기 개장하며, 해변에서 비치발리볼이나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존'과 가족 연날리기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송도해수욕장은 올해부터 무료 카약 체험 행사를 마련했으며,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유아전용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송도해수욕장은 지난해 개장 100주년을 맞아 부활시킨 '해상 다이빙대'가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다이빙대 이용객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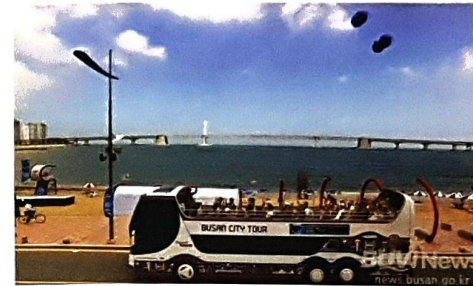
7월 1일 개장하는 다대포해수욕장은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방사림을 공개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로 취소됐던 '꿈의 낙조분수 분수쇼'를 클래식으로 연출해 선보이고 있다.

다대포 · 일광 · 임랑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 부산시티투어버스, 광안대교 · 부산항대교 운행

부산시티투어버스가 이달 말부터 최근 개통한 부산항대교를 기존 해운대 순환코스에 포함시켜 운행한다. 이로써 해운대 순환코스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은 부산항대교 뿐 아니라 광안대교까지 달리며 아름다운 부산의 해안 풍광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해운대 순환코스는 부산역에서 출발, 부산박물관~광안리해수욕장~누리마루~해운대해수욕장~신세계백화점~시립미술관~광안대교~UN기념공원에서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코스.

이달 말 해운대순환 코스에 부산항대교 노선을 추가하면, 부산역에서 출발, 영도~부산항대교~부산박물관~광안리해수욕장~누리마루~해운대해수욕장~신세계백화점~시립미술관~광안대교~UN 기념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스카이라인 코스도 이달 말부터 운행한다. 스카이라인 코스는 부산역에서 출발해 부등길~감만부두~백운포(신선대)~오륙도~용호만터미널~대남교차로~황령산 봉수대~부산역을 경유한다. 매일 1회 오전 9시40분에 출발하며, 운행시간은 3시간30분이다. 요금은 성인 1만원, 청소년 5천원이다.

문의 : 부산시티투어(464-9898)

## 친환경전기버스 '타요버스' 부산서도 운행 부산관광활성화에 도움될 것

서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타요버스가 부산에도 오는 11월부터 운행된다. 시티투어버스로 도입하는 타요버스 운행코스는 해운대 벅스코~누리마루 APEC하우스~부산아쿠아리움. 요금은 어른 1천500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500원이다.

부산 타요버스는 친환경 전기버스 2대로 운행한다. 48인승으로 배터리 자동교환형 전기버스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차간격은 20분이다.

부산시가 1대 6억원을 들여 구입하는 배터리 자동교환형 전기버스는 한국항공대는 산학협력단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S산전, 피엠그로우 등이 개발했다. 연구비만 247억 원이 들었다. 이 전기버스는 상부에 배터리를 탑재해 운행한다.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면 모든 정류장에 설치된 배터리자동교환시스템에서 미리 충전한 다른 배터리로 1분 안에 교환한다. 충전을 위해 오랫동안

운행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 자동차 타요버스 운행으로 부산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 부산 스마트관광 홈페이지 운영

### 관광객 원하는 명소·숙박·음식 등 맞춤형 정보 제공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스스로 관광코스를 설계하는 '스마트 관광' 시대가 열렸다.

부산광역시 문화관광 홈페이지(lour.busan.go.kr)에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부산투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지난 16일부터 관광객 스스로 부산관광코스 짜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관광 프로그램과 '부산투어' 앱은 관광객들의 여행 추세가 단체관광에서 개별 자유여행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맞춰 여행객에게 필요한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개별 자유 여행객들은 '관광객 스스로 부산관광코스짜기'를 비롯해 부산 관광지도 조회, 스마트폰 배경화면 내려 받기, 부산관광 UCC 조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관광객 스스로 부산관광코스 짜기'는 개별 관광객이 직접 자신의 시간과 비용에 맞춰 원하는 여행정보를 찾아 자신만의 관광코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광객이 스스로 주요 관광지를 선택해 전체 여행코스를 만들 수 있는 것, 주요 관광지의 위치를 지도로 볼 수 있어 여행 동선을 알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관광지 이동시간, 관광시간 등 여행 일정의 소요시간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각 관광지의 교통정

보, 숙박·음식 정보 등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관광객들

은 자신이 설계한 관광코스를 스마트폰

으로 보면서 여행할 수 있고, 출력

해 가이드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신이 짠 여행

스케줄을 데이터베이

스(DB)로 만들어 다

른 관광객과 공유할

수도 있다.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스

마트폰 배경 화면으로 내려 받

을 수 있는 '스마트폰 배경화면

다운'과 '부산관광 UCC전국 공모

전 입상작 조회' '부산관광지도 조

회'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

고 있다. 부산관광 UCC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재미있는 부산관광 관련 동영상으로

유튜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동영상뉴스 www.badaily.com



## 세계 3대 디자인 박물관 부산에 세운다

### 부산시 - '레드닷' 협약 ... 디자인 박물관 짓고 페스티벌 열기로

디자인 분야의 오스카 상으로 불리는 '레드닷 (Red Dot)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하는 디자인 박물관이 부산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최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주관하는 레드닷

축과 디자인 박물관 유치, 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독일)는 IF 디자인 어워드(독일), IDEA 디자인 어워드(미국)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이다.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은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한 세계적 기업 및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세계적으로 독일, 싱가포르 등 2곳에만 있다.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박물관은 2010년 오래된 탄광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디자인의 중심지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박물관 부지는 현재 미확정이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와 레드닷은 세계적 디자인 페스티벌을 부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디자인아카데미도 설립

하고 부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접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와 레드닷은 하반기에 박물관 부지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 내년 초 지역 상공인들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는 1988년부터 해마다 혁신적인 디자인 작품을 국제적으로 넷 팀을 찾아서 선정한다. 대회 수상작들은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red Dot Design Museum)에 전시한다.

## 을숙도, 낙동강에 시티투어버스모양의 생태탐방선 뜬다



7월부터는 을숙도 등 낙동강 위를 떠다니는 버스 모양의 생태탐방선이 뜬다.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발주한 낙동강 생태탐방선의 디자인(사진)이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배에 접목시킨 모습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생태탐방선은 부산의 시티투어 2층 오픈 버스를 디자인에 접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마치 수륙양용차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덕분에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지 않을까 기대된다.

이에 앞서 부산시와 관광공사는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을 위해 생태탐방선을 건조하기로 결정한다. 지난해 말에는 탐방선 건조를 위해 (주)광동 FRP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디자인과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 부산시 마이스 분야 9월까지 전문인력 양성

부산시가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시는 (사)부산관광컨벤션모임과 컨소시엄을 구성,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통새 고용시장 공략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컨소시엄은 오는 9월까지 4개 과정 각 20명씩 총 80명을 교육하고, 일자리 협력망 구축으로 교육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론수업 외에도 현장실습 등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교육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정별 교육 일정은 스피치매니저(컨벤션·전시·이벤트 분야)=5~7월 △서비스매니저(호텔·관광 분야)=7~9월 △관광 MICE컨버전스(통번역·가이드·디자인 분야)=7~8월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맞춤형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일자리 불일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내 최대 도심광장 '송상현 광장' 개장

## 사업비 1850억원 투입...송상현 동상, 잔디광장, 산책로, 바닥분수, 편의시설 등 각종 상설 문화공연장으로 활용

도심 속 상징적인 보행광장 조성 및 만성적인 중앙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송상현 광장'이 지난 12일 개장됐다.

'송상현 광장'은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양정동 송공삼거리 구간의 중앙로 기존 8차로대신 한변대가 있던 전포동 쪽에는 4차로, 범천동 쪽에는 7차로로 확장(L=1,540m, B=35m~50~100m)했다. 중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 가운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광장(34,740㎡, L=700m, B=45~78m)으로 총 1천850억원을 투입했다.

이 광장은 ▲문화마당 ▲다이나믹 부산마당 ▲역사마당 등 3개의 마당으로 조성됐다. '문화마당'은 공연 및 이벤트 공간으로 잔디관중석,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돼 야외공연, 카페 등 편의시설이 제공됐다. '다이나믹부산마당'은 정열적인 부산시민의 동적 활동 공간으로 대규모 잔디광장, 포장광장, 실개천, 산책로 등이 조성됐으며, 거리응원, 시민행사, 각종 축제의 장으로 활용된다. '역사마당'은 역사체험 및 기념공간으로 바닥 분수, 역사의 숲, 송상현 기념광장 등이 조성되며, 다양한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외에, 송상현 광장은 광장의 전체규모 중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도심 속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광장으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활동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및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이나믹 부산광장은 잔디광장(1만766㎡), 화강암 판석 광장(2만2023㎡), 산책로 데크(216m), 바닥분수(600㎡), 실개천(124m) 등도 있으며, 문화마당에서는 소규모 상설문화공연장으로 사용될 선릉광장(4786㎡)과 잔디관중석이 들어섰다.

김무웅 리포터



송상현공송상현인성



# 부산시민공원 '도심 속 명품공원'이란 명성에 걸맞게 야간경관도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



부산시민공원 내 하늘빛 폭포의 야간 경관 모습

100년 만에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이 지난달 개장했다.

시민공원은 부산진구 범전·연지동 옛 미 하리아부대 부지 53만 800㎡에 6천679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2011년 8월 착공해 2년 8개월 만에 개장하게 됐다.

시민공원은 97만여 그루의 각종 나무로 이뤄진 다양한 산책길과 생태 복원 하천인 부전천 및 전포천, 문화체육공간 등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 힐링공간으로 개방된다. 시민공원에는 현재 150종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관목이 대부분인 85만 그루이지만 키가 큰 교목도 15만 그루에 달한다. 이 중 1870그루는 원래 하리아 부대 안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었다.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등 다섯 가지 주제의 길에는 이들 길을 상징하는 나무가 길을 보호하듯 에워싸고 있다. 100만 그루 나무 중 가장 비싼 나무는 시청 옆에서 가져온 녹나무다. 현재 가치로 1억5000만 원에 달한다. 얼굴이 비친다는 '거울 연못'에는 100살 부부송(夫妻松)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하리아 부대에 있던 수십 년 된 플라타너스 98그루는 역사를 인디언의 듯 저마다의 모양을 뽐내며 숲을 이뤘다.

'하늘빛폭포', 방문자센터 앞 '거울연못'에 설치된 25m 높이 대형 분수로 시민공원의 랜드마크다. 밤이 되면 하늘빛폭포에서는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와 LED 경관조명이 조화를 이뤄 화려한 색채의 향연이 펼쳐진다. 레이저쇼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도심 속 명품공원'이란 명성에 걸맞게 야간경관도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됐다.

이효영 기자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 자갈치·다대포 연안, 시민·관광객이 자연과 함께 숨쉴 수 있는 힐링공원으로 변신 중, 연말 완공 돼



다대포해수욕장과 자갈치 연안이 '힐링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사진은 올 연말 준공을 앞둔 다대포해수욕장 연안 공원 모습 / 사진: 부산시 제공)

### 숲·산책로·습지 갖춘 휴식공간으로 연말 탈바꿈

다대포해수욕장과 자갈치 연안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쉴 수 있는 '힐링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시는 연안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 시민·관광객들이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이 숲과 실개천, 산책로 등을 갖춘 '바닷가 정원'으로 변신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60억원을 들여 벌이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서다. 다대포해수욕장은 연안 14만3천㎡ 규모의 방사림을 가꾸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숲속 산책로 등을 만들어 힐터를 제공한다. 이곳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습지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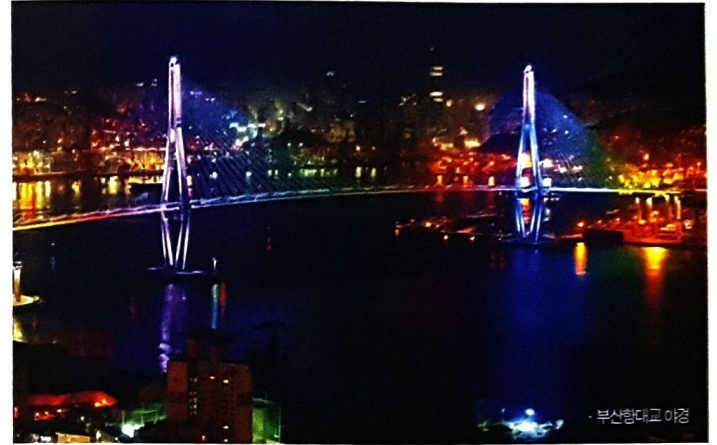
바다를 향한 공연무대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 등도 조성하고 있다.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중구 자갈치시장 일대 연안도 시민·관광객이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 200년부터 101억원을 들여 충무동 물양장~자갈치시장~영도대교를 잇는 650m 구간 해안산책로를 만들고 있다. 특히 47년 만에 부활한 영도대교 도개 광경을 보러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을 위해 '민남의 광장'도 해안산책로에 조성하고 있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 부산항대교 안전, 경관 갖춘 다리로 관광자원 활용가치 높아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잇는 부산항대교는 안전과 경관을 동시에 만족시킨 '명품다리'다. 부산시는 2006년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사업을 본격화했다. 2007년 4월 공사에 들어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지난달 완공했다.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해 상판을 끌어당기는 현수교인 광안대교가 우아한 곡선의 여성미가 돋보인다면 부산항대교는 주탑에서 뿜은 쇠줄



· 부산항대교 야경

이 상판을 단단히 붙드는 사장교 방식으로 웅장한 외형의 남성미를 자랑한다. 강합성 사장교로는 국내 최장이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부산항대교 주탑은 해수면에서의 높이가 190m로 광안대교의 주탑 높이 105m의 배 가까이 된다. 야간 경관조명도 광안대교가 케이블에 직접 등을 설치해 발광시키는 방식인데 비해 부산항 대교는 LED 조명등을 이용해 케이

블에 빛을 투광하는 간접 투광방식을 채택했다.

6천 TEU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주탑 사이 거리가 540m에 달한다. 특히 선박 충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 충돌 위험도 분석 및 충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상급의 충돌 방지책을 적용,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효영 기자

## 영도구, '부산항대교' 조망 시설 마련

### 청학동 해돋이 마을 배수지 등 4곳 휴게시설·조망테크 설치

영도구는 부산항대교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 시설을 4군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망 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부산항대교 봉래동램프 아래 공원부지와 청학수변공원, 해돋이마을, 청학배수지 등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봉래동램프 아래 공원부지의 공원명칭 공모도 실시하는 한편, 전망타워와 함께 계단식 바닷물 체험장, 조명음악 분수대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봉래동램프 공원부지는 공안대교~거가대교를 잇는 부산해안순환도로를 소개하는 교량박물관의 후보부지로도

검토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부산항대교 인근 청학해안파출소 근처에는 세계 주요 교량을 소개하는 벽화와 친환경 보행시설을 갖춘 스토리텔링 거리도 조성될 예정이다.

영도구 청학동에서 부산항대교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해돋이 마을'과 청학배수지에는 각각 휴게시설과 대형 전망데크가 설치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부산항대교의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객 많이 찾는 산복도로, 힐링·도보여행 4개코스 운영



부산 산복도로를 걸으며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도보여행' 코스가 생겼다. (조림이바구길에 있는 유치환 우체통)

부산 산복도로를 걸으며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도보여행' 코스가 생겼다. 부산시는 산복도로 체험·공감여행 확대를 위해 '힐링 도보여행' 4개 코스를 운영한다. 이 코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산복도로 명소 9곳(9경)을 중심으로 곳곳을 둘러볼 수 있고 조망이 뛰어난 곳으로, 주간 3개·야간 1개 코스다. 주간코스는 중구, 동구, 서·사하구 산복도로를 둘러보는 코스, 중구 코스는 코모도호텔~산리협동조합~디오라마전망대

~민주공원~황순원의 서재~금수현의 음악살롱을 둘러보는 코스로 1시간 걸린다. 동구 코스는 좌천문화공성아트센터~공원~산만디카페~망양로 718번길~까꼬막~유치환의 우체통~마실한바쿠공방~장기려 더 나눔센터~168계단~이바구공작소를 체험하는 코스로 1시간30분 걸린다. 서·사하구 코스는 꽃마을문화예술전시관~서대신마을카페~천마로 산 370~미문화학습관~비석문화마을~하늘마루 전망대~감내어울러 옥상전망대를 둘러보는 코스로 2시간 걸린다.

야간코스는 동구 산복도로 일대를 1시간 동안 둘러보는 코스로 장기려 더 나눔센터~이바구공작소~까꼬막카페~보리사리로 이어진다.

'힐링 도보여행' 코스 안내를 위해 마을지도와 표지판, QR코드 등을 설치 중이다. 특히 야간코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구 산복도로 일대에 '별이 쏟아지는 힐링 갤러리'를 주제로 1억5천만원을 들여 경관·안내조명 설치를 마쳤다. 6월까지 시설물을 모두 갖추고 각 코스별 명칭을 정해 관광객들을 맞을 계획이다.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주민주도형 방향으로 전환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 확대, 차별화된 재생사업 추진하기로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발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2010년 7월 시작 이후 4년간 도시재생의 새 지평을 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세계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을 보면 앞으로 사업의 주체와 운영 방식을 주민 참여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한다. 재원은 시비중심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로, 내용은 물리적 시설 공급에서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방식은 행정 지원 중심에서 민·관·산·학 지원으로, 홍보는 언론 홍보에서 국제적 인종 추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새로운 추진 과제도 설정했다. 먼저 사업 대상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고, 역사·문화·예술·경관·스토리텔링 마을 등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공헌활동가와 연계한 마을지원단 운영 활성화, 미취업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인력 양성사업,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에 따른 주민 주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민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부산 범일동에 '이중섭 풍경거리' 준공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거리'에 들어선 갤러리

동구 범일동에 천재화가 이중섭(1916~1956)이 6.25 피난 시절 보냈던 곳에 '이중섭 풍경거리'가 준공됐다. 동구 범일동은 이중섭이 아내 아마모토 마사코(92·한국명 이남덕), 아들 돌과 함께 피난시절을 보낸 곳. 부두에서 잡일을 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며 '범일동 풍경'이라는 명작을 탄생시킨 장소다.

동구는 지난해 8월부터 4억5천만원을 들여 범일동 부산은행(범천동지점)에서 마을광장까지 400m 구간을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거리'로 꾸었다. 이중섭 부조 흉상으로 시작하는 이

거리에는 이중섭 갤러리와 이중섭 연대기, 거리미술관, 회화길 100계단, 판잣집 화실 포토존, 마사코 전망대 등이 들어서 있다. 이중섭 갤러리는 모두 3곳으로 그의 그림과 함께 범일동에서의 삶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보여준다. 이중섭 연대기는 그의 일대기 가운데 중요사건을 설명해 놓은 공간. 거리미술관은 '부부' '구상네 가족' '춤 추는 가족' '별의 아이들' 등 이중섭의 작품 전시와 함께 지역 미술가와 학생, 주민들이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회화길 100계단은 이중섭이 쓴 편지와 그의 생전 사진을 계단 곳곳에 붙여 놓았다.

판잣집 화실 포토존은 회화길 100계단 중간에 그려놓은 벽화. 1953년 9월 무렵 이중섭이 지어 혼자 지낸 판잣집을 벽화로 그리고 벤치를 설치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사코 전망대는 이중섭이 아내와 아이들이 일본으로 떠난 뒤 가족을 그리워하며 '범일동 풍경'을 그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에 세운 전망대. 사방이 확 트인 전망대는 연면적 33.24㎡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주민 사랑방과 이중섭 갤러리가 들어서 있으며, 2층은 전망대와 이중섭의 편지를 등으로 꾸며져 있다.

## 부산시 산복도로 마을 디자인관리 계획 수립 운영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의 변화와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

디자인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행 5년째를 맞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중 디자인 시설물인 벽화와 조형물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벽화와 조형물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첫인상인 만큼 유지·관리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난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형성된 벽화와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벽화는 총 126개소, 조형물은 35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디자인 시설물별로 관리대장을 마련해 비치하고,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와 보수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벽화와 조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자문을 거쳐도록 했다. 채색 벽화는 가능하면 줄이고, 타일 등 부조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평면 벽화에서 입체 벽화로 전환해 예술성을 높이기로 했다. '마을 디자인 자문단'을 도입해 시설물 수준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 근대역사 원도심 골목투어 상품 코스개발

이야기 할때, 할배 가이드 60명 스토리텔러 양성 마쳐 시, 앞으로 새로운 콘셉트의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계획



부산시는 '원도심 근대역사 골목투어' 상품 4코스를 개발해 스토리텔러를 파견한다. (사진: 보수동책방골목)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근대역사 골목투어' 상품 4가지 코스를 개발하고 할배, 할배 가이드 60여 명의 스토리텔러 양성 교육을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

원도심 지역에 산재한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이번 골목투어 상품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체험형 상품으로 개발됐다. 역사문화 콘텐트에 먹거리, 볼거리를 연계해 관광벨트를 만들고 도보여행이 가능하도록 코스를 짰다.

△1코스-영도다리를 건너다 △2코스-용두산에 올라 부산포를 보다 △3코스-이바구길을 걷다 △4코스-국제시장을 기웃거리다로 구성된다.

1코스(도보 2시간)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도다리 도개 관람에서부터 시작된다. 영도 수리조선소길을 직접 걸어보고,

봉래시장과 남항시장에서 전통시장의 활기와 정을 느껴볼 수 있다. 부산어묵전시관에 들러 먹거리 체험도 할 수 있다.

2코스(2시간 40분)는 용두산 봉아주차장, 관수옥과 초량왜관 터를 거쳐 광복로로 이어진다. 용두산타워에 올라 원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대역사관과 대각사도 코스에 포함돼 있다.

3코스(2시간)는 옛 백제병원과 남산참고 터, 초량교회를 거친다. 168계단과 김민부전망대, 당산, 이바구공작소도 둘러볼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서민들의 애환을 느껴볼 수 있고, 부산의 인물도 잘 정리돼 있어 자녀와 동행하기에 좋은 코스로 꼽힌다.

4코스(2시간)는 BIFF광장과 먹자골목, 국제시장, 부평동 강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예능 프로그램 '백2일'에서 이승기가 먹었던 씨앗호떡과 부산어묵, 비빔당면 등 부산의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에도 들른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원도심 골목투어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 만든 상품"이라며 "골목투어에 이야기 할때, 할배의 재능을 해설을 곁들여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콘셉트의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참가예약 051-780-2177

김무웅 리포터



## 광안리해변 차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

7~8월, 토·일요일 밤 9시~ 새벽 1시까지



차없는 문화의 거리가 올해도 변함없이 7·8월 토·일요일 밤 9시~새벽 1시 언양불고기 삼거리~만남의 광장 830m 구간에 문을 연다. 8회를 맞는 차없는 문화의 거리는 올해는 아트, 버스킹, 콘서트, 펀 등 4개 테마 공간을 구성, 매주 주제가 있는 공연으로 내실을 더하게 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가면만들기, 바리스타 체험, 컵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젊은 예비작가가 참여하는 거리갤러리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청 문화공보과 ☎610-4049

## 동천다리 4곳 야간조명 설치

문현금융혁신도시와 어울려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

부산시는 문현 금융혁신도시 부산국제금융센터 완공에 맞추어 동천 주요 교량 네 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관조명을 밝히는 곳은 범4교교, 성서교, 무지개다리, 범5교교이다.

부산상공회의소 인근에 있는 범4교교는 '풍성한 빛'이 특징이다. '맑은 물결 위에 드리운 달빛'을 주제로 한다. 주황빛을 주요 색으로 물결과 달빛을 형상화한다. 이 다리는 동천 다리 중에서 폭(35m)이 가장 넓다. 황령터널 진출입 차량이 많이 다는 교량이다. 네 개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됐다.

1996년 완공된 범5교교는 '어울림의 빛'을 담는다. 자연과 인공이 하나 되는 동천을 주제로, 연두색 빛깔을 주로

사용한다. 길이 58m로 가장 긴 다리다. 성동중학교와 시민장례식장을 연결한다. 무지개다리는 희망의 빛을 쏜다. 하안 색깔을 바탕으로 '동천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구현한다. 성서초등학교와 마트 사이에 있는 성서교는 '힐차게 흐르는 생명의 물결'을 주제로 파란색이 상징 빛같다.

네 개의 다리는 통일성을 기하려고 왼쪽에 동천이라는 글자를, 오른쪽에 다리 이름을 넣어 야간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경관조명은 한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의 아름다움을 구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리 경관조명 사업이 완성되면 동천 일대는 문현금융혁신도시와 어울려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 동부산관광단지에 일부 혜택 예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들어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건설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이 허용된다.

내국인에게에는 콘도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외국인 1인이 분양받은 콘도는 내국인 전매가 제한된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콘도 분양 시 객실 1개당 분양받는 사람은 5명

이 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산의 경우 동부산관광단지에 일부 혜택이 예상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정부는 동부산관광단지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자격(F-2 비자)을 주고, 5년 뒤 영주자격(F-5 비자)을 준다.

동부산관광단지에는 휴양형 콘도, 타임 콘도, 별장형 콘도 등의 사업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종합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레포츠지구' 내에는 휴양형 콘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동부산단지 테마파크 부지 국내 대기업 참여 뜻 잇따라

CJ그룹이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사업에 손을 댄 후 새로운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인 L사와 G사, H사 등 컨소시엄은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부지에 세계 최대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들 기업은 어린이 워터파크 등을 결합해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정통 테마파크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내 대기업 P사와 손을 잡은 N사 컨소시엄도 동부산관광단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세계 6대 항구도시를 테마화한 대규모 놀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항을 포함해 세계 주요 항구를 테마파크 소재로 삼아 부산의 특색을 강조한 공원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휴양·레저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D사도 최근 유력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는 의사를 부산도시공사에 전해 왔다. 이 회사는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개발을 희망하는 자분들은 부지 50년 무상임대 기존 조건 적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본은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부지를 아예 사들이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또 테마파크 부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 등도 마다하며 사업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더 알차고 더 풍부하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부산시는 '2014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오는 9월 12~14일 사흘간 벡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컨벤션은 2020년 아시아 의료관광 3대도시 부산 진입을 목표로 지난 2009년 첫 개최된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사)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100여 개 기관 140여 개 부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관 및 프로그램도 한층 풍성해진다. 지난해

와 달리 올해 의료관광컨벤션은 의료전시관을 비롯해 한방존과 의료관광클러스터 등 주제별 전시관을 확대해 전문화되고 집중화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힐링체험관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 100세를 주제로 한 선진재활요양특별관도 선보일 계획이다.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열린 '2014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 특별전'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 의

료진출과 관련한 법을 컨설팅 세미나도 열어 부산 지역의료기관의 이 지역 진출을 돕는 기회도 마련한다.

의료분쟁중재원과 함께 하는 의료분쟁 관련 세미나도 개최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의료관광컨벤션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만 여 명이 늘어난 5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가신청 및 행사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홈페이지([www.bimtc.org](http://www.bimtc.org))나 전화(051-461-275~6)로 가능하다.



## 의료법인, 국제회의·의료관광 유치업 허용

의료법인도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이 결합된 이른바 '메디텔' 건립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을 세워 해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를 들어 영업하는 것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법인 난립과 모 의료법인 자산의 대규모 유출을 막기 위해 '상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내에서만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 미래의 잠재적 가치 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에 관심 가져야

관광객이 생태학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체험·관찰학습을 제공하며 살아있는 자연학습이 이뤄지도록 이끄는 현상을 생태관광이라고 한다.

자연 보전법을 비롯해 관련법에도 일찌감치 등장하였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주요 논문주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지역단체에서 내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여전히 내놓을 만한 생태관광상품을 찾기가 힘들다.

우리의 강산이 생태관광지로서 매력적 없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세계철이 다른 모습으로 동·식물 자원을 피워내는 산해(山河)가 생태관광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광상품 선호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자연을 즐기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관광상품은 자연가치의 인식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력을 유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는 것은 인류를 건강하게 함을 물론 지속가능한 관광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관광형태는 자연관광, 생태관광, 농촌관광, 녹색관광, 모험관광, 자연유산관광 등이 있다. 이중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의 쾌적성, 지역사회 그리고 방문객에게 쾌적함을 준다. 뿐만아니라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녹색문화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관광은 인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면서 잘 보존된 자연과 지역문화를 공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자원의 보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지역의 생태학적, 사회적, 경제적인 목

구에도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세계 각국의 생태관광 중요성

호주는 이미 지난 1994년에 국가생태관광전략을 수립,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환경관리·산림생태관광프로그램·국가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야생 숲 탐방·자연사 여행·오지탐험·고래관찰·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 등이 생태관광 활동을 통해 2.5억 달러의 생태관광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0km의 산호초 군락 대보초(大堡礁/Great Barrier Reef)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보고지이다. 특히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 조성된 몬테 베르데는 원시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이다. 깊고 험한 정글 사이를 로프로 연결해 정글과 정글 사이를 탐험하는 스카이 트렉(Sky Trek)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생태관광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생태관광원칙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국가생태관광정책의 개발을 통해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약 10%가 생태관광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르네오섬에 위치하고 있는 사라왁주와 사바주의 열대우림 속의 오랑우탄 재활센터 등을 통해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생태여행이 증가하여 자연관찰 여행, 국립공원과 내셔널트러스트 등과 같은 자연이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을 견학하면서 환경회의에 참가하는 연구여행, 환경보호활동을 겸하는 환경학습여행,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기금이나 자연보호단체 등에 기부를 하기 위한 기부여행 등 여러가지 형태의 생태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니아아카라 뒀은 절인 한반강 적당폭포



순천만 습지대

큐슈의 야쿠시마 생태관광지역에는 매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외에는 자이언트 판다의 유일한 서식지인 중국 구채구와 황룡, 캐나다 록산맥공원 탄자니아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러시아의 바이칼호수, 크로아티아 프리트비체호수,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등도 세계 최고의 생태관광지역이다.

이제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이 그 붐을 일고 있다. 생태관광은 이제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관광은 대량관광보다는 소규모 그룹의 여행으로 발전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회복과 임치료에도 자연생태를 이용하듯이 치유의 공간으로 자연이 활용되며, 그 가치는 자연유산의 잠재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 자연유산은 미래의 가치 높이는 생명의 관광자원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습지보전법에서 생태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환경부가 생태관광 추진전략을 제시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을 고려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이 선정되기도 했다. DMZ 등 우수 생태자원 및 문화, 역사자원 보유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추진하고 생태계 보전계획,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자원별로 차별화된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생태관광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과 해당분야의 생태전문가를 가이드로 등행해 그 가치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생태관광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생태는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원인 만큼, 참여자의 자연보호와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 그리고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자연유산은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생명의 관광자원이다.

미래관광자원은 자연유산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 특유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자연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면서 이를 국가 브랜드 전략으로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관광상품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선진관광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측면에서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에 더욱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오 btjbusan@hanmail.net



# 선진국들의 농촌관광 활성화 벤치마킹 필요

## 우리나라는 초기발전단계 지나 도약단계로 성장 국가차원에서의 농촌관광 지원육성체계 필요

전통적으로 농산물생산이라는 재화생산영역에 국한되어 온 농업활동 범위가 최근 '농촌 아메니티(rural amenities)'의 발골로 인해 서비스 차원의 농촌관광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메니티 자원이란 내면에 숨은 자원을 뜻하는 것으로, 농촌 고유의 휴양적·심미적·생태적·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 전원경관, 생산품, 역사문화, 공동체 등의 유·무형적 자원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관광은 초기발전 단계를 지나 도약단계로 성장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나, 농촌개발의 차원에만 국한된 접근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농촌관광은 1990년대 이후 활발한 관광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농촌관광분야를 새로운 시장으로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다양한 관련 사례들을 분석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 서유럽 국가들의 치밀한 농촌관광 네트워크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의 농촌관광은 1990년대 이후부터 농촌체험, 전통시장, 농산물직판, 숙박, 스포츠 등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화되어갔다. 유럽연합 농업정책의 기초가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생산성 중심 정책에서농산물의 품질향상, 친환경농업, 아메니티자원에 기반한 농촌개발로 전환함에 따라 농촌관광에 대한 중앙정부와 민간조직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농촌관광 발전사례로 유럽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랑스는 농촌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범부처간(국토정비청, 관공부, 환경부, 농림부)에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브랜드화된 주요 농촌관광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농촌관광 상품을 유형화했다는 점이 돋보

인다. 또한 상품마다 품질현장을 제정하여 네트워크의 코어에 해당하는 조직을 통해 농촌관광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촌관광상품을 행정 단위가 아닌 지리적, 역사문화적 동질단위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단위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일반관광시설(호텔+식당)과 농가주택 등을 숙박시설로 개량한 지프, 농업과 연계된 현업 농가의 관광시설(BAF, AP)등 크게 3원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 세 그룹은 관광산업의 규모화, 체인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경영이라는 일반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된 개별 사업자를 가입자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마케팅, 공동예약 시스템의 운영, 관광상품의 유형별 품질 관리와 등급제 등을 중앙단위를 통해 관리한다.

### 유럽 GITE와 BAF 사업의 성과

흔히 지프(GITE)라고 부르는 유럽의 숙박형 농촌관광은 당초 농촌의 은퇴농 또는 농촌지역의 은퇴자들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부수적인 소득확보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농촌관광 숙박시설로 세계에 널리 알려질 만큼 성장했다. 관련 정책당국과 전문기관들의 협력과 함께 공급자들이 각 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상품의 품질관리와 마케팅에 적극 나섰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현재 각국의 지프 네트워크를 회원으로 한 유럽지프 연합회가 활동 중에 있다.

한편 농업회의소가 주도하고 있는 BAF 사업은 지프와는 달리 현업 중인 농업경영체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업활동의 적용을 받는다. 지프가 은퇴농을 중심으로 농촌주택을 개량, 보수해 주로 숙박위주의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BAF는 농업생산활동에 현업으로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들을 중심으로 외식사업과 체험교육, 숙박 등 농촌관광 활동을 조직화하고 있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프랑스 농민들은 은퇴 후에도 지프를 통해 농촌관광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업연금소득과 숙박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정책

일본에서의 농촌관광은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확산된 농산촌지역의 투어리즘을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이라 불린다. 그동안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농림어업인 박을 통한 농림어업체험 및 농림어업종사자와의 교류, 크라인 가르텐(체재형시민농원)에서의 체재, 어린이의 농산어촌지역 체험학습·체험형 수학여행, 고향문화축제와 같이 지역전통문화행사의 참가를 통한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정부는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리조트 정비, 농가민박 육성을 추진하고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장비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그린투어리즘법'을 1995년 제정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농촌관광은 낙후된 농촌경제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자리잡게 되었고, 유럽의 경험과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육성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농산어촌지역을 배경으로 한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 및 팜인(Farm inn) 등 녹색관광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등 농촌관광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인력자원 육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기반시설정비 등의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연자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의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이용한 농촌관광 서비스상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또한 농촌관광 서비스관련 편의시설과 사업운영조직에 대한 정보도 진행 중에 있으며,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욕실 등에 대한 정비사업과 함께 숙박시설 모델의 다양화, 정부 융자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차원에서의 농촌관광 지원육성체계 필요

농업관광은 농가가 농업활동의 연장수행하는 것으로서 농촌관광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농가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농가 주택의 개량 및 보수, 사회참여, 교류를 통한 고립감 해소, 후세대에 대한 경영체 이양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농촌관광부문을 산업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활동의 균형발전과 농업활동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부문간 협력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행 농촌관광 지원체계는 공급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수요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확대 및 재편성함으로써 농촌관광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김봉오 btjbusan@hanmail.net





## 여행사·관광통역 안내사 간 표준약관 제정·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관광통역안내 위탁 계약에서 구두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

총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표준약관 보급으로 당사자 간 분쟁 예방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피해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 도입후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서면계약 미체결 등의 거래관행으로 관련 분쟁이 지속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특히 여행사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 중 이탈 등으로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해 왔다. 아울러 구두계약관행으로 대가지급 기준, 쇼핑상품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와 관련한 분쟁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사자 간 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대외 이미지 악화를 초래해 거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따라서 표준약관 제정·보급을 통해 먼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 관광통역안내 업무 중 상해시 치료비 지급의무 등을 명시했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중 본인의 고

의·과실 없이 상해발생 시 치료비 지급, 관광통역안내업무 활동에 수반되는 교통·숙박비 등 실비 지급, 관광일정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다음으로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종료 후 경비 정산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타 여행사와 계약 체결시 여행사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대가 지급 및 행사 진행비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대가는 부속 합의서로 정하고, 대가 결정시 관광통역안내 업무 시간(반일, 전일 등), 시간대(아간, 휴일 등), 경력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일간·주간·월간 등 단위로 책정해 원화로 지급토록 했다.

또한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하는 행사 진행비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대가 지급시기를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 종료일부 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일회성 거래의 경우 정산과 동시에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지행위를 명시해 불공정거래 등을 사전에 예방했으며,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거래에서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정했다.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로 하여금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 창조관광분야 정책자금융자 상반기 중 근거 마련

중소여행사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했다.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이 오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체계가 대폭 개선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행 벤처 중소기업 평가지원체계가 제조업과 IT 산업 중심으로 된 것을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올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2만 9304개의 벤처인증 기업 중 관광분야는 0.11%인 33개 업체로 이 업체들 역시 기술 및 연구개발 유형으로 인증된

업체들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으로 관광서비스 특성에 맞춘 벤처 확인 기술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조관광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올 상반기 중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업계는 이같은 융자 범위 확대와 관광분야 투자 및 창업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아이디어에 기반한 관광산업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도 조성된다. 현재 타 산업에 비해 관광분야는 콘텐츠시업화를 지원하는 금융투자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정부는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을 오는 201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시 우수 관광상품 인증마크 받을 여행사 3곳 선정 부여 한류 웨딩포토 체험부터 안티에이징 미용관광까지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우수관광상품 인증제'의 인증 마크를 받을 여행사 3곳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은 '글로벌 KHC 여행사'의 △한류 웨딩포토 체험관광 △안티에이징 미용관광 △실버휴양관광, 'BS핀투어'의 △오색오감으로 만나는 부산이야기 △여행의 백미를 담다, '생규 부산'의 △사진으로 남기는 부산 추억여행이다.

시 관계자는 "이 상품들은 최소 2박 3일에서 최대 4박 5일까지의 체류형 관광상품"이라며 "가격은 항공료를 제외하고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류 웨딩포토 체험관광'의 경우 웨딩사진 촬영, 도자기 만들기 체험, 스파, 쇼핑 코스로 한 커플 기준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안티에이징 미용관광'은 치과 스케일링, 안과 검안 서비스, 피부과 시술, 성형상담 등의 코스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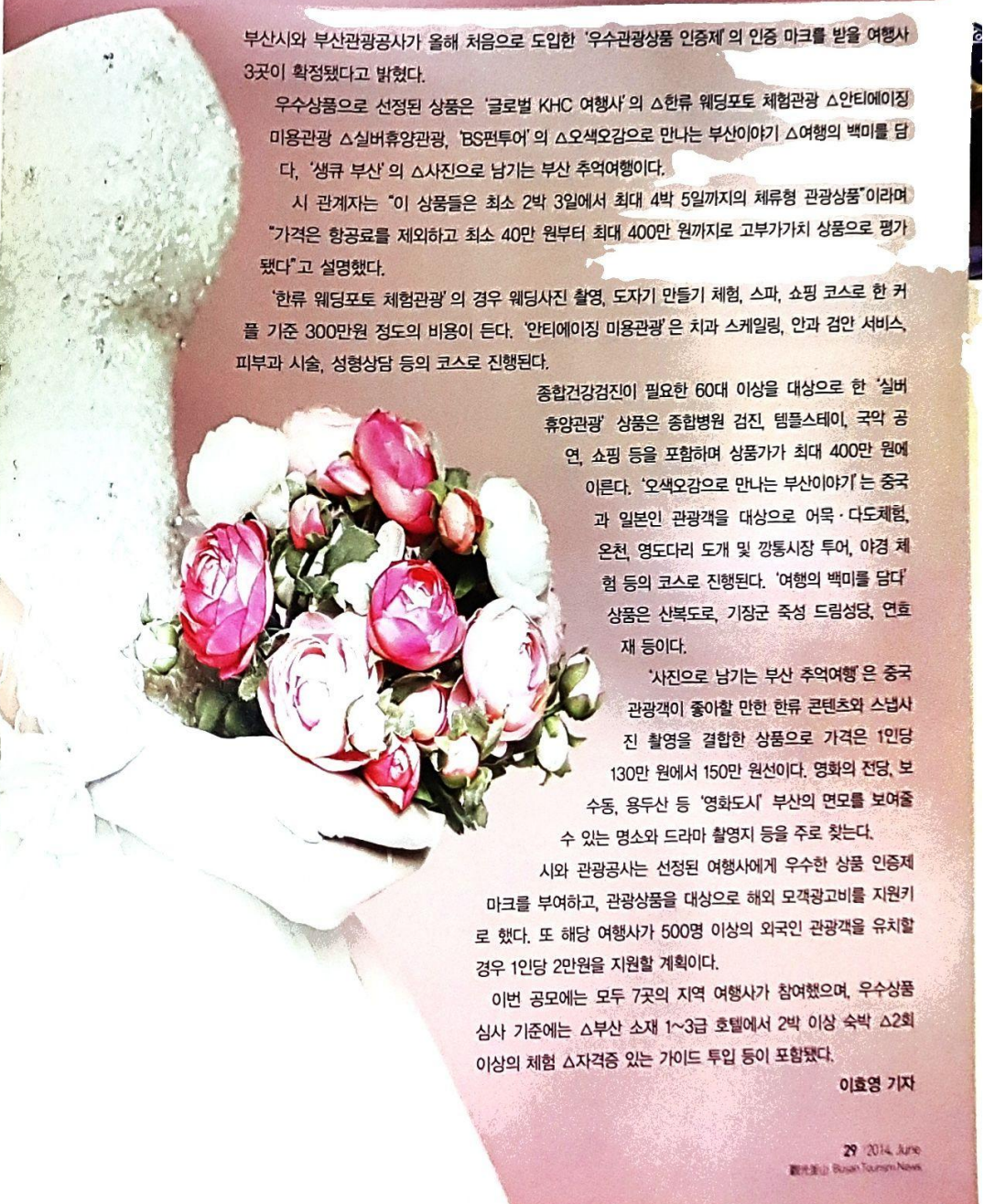
종합건강검진이 필요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 휴양관광' 상품은 종합병원 검진, 템플스테이, 국악 공연, 쇼핑 등을 포함하며 상품가가 최대 400만 원에 이른다. '오색오감으로 만나는 부산이야기'는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묵·다도체험, 온천, 영도다리 도개 및 강릉시장 투어, 야경 체험 등의 코스로 진행된다. '여행의 백미를 담다' 상품은 산복도로, 기장군 죽성 드림성당, 연호재 등이다.

'사진으로 남기는 부산 추억여행'은 중국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한류 콘텐츠와 스냅사진 촬영을 결합한 상품으로 가격은 1인당 130만 원에서 150만 원선이다. 영화의 전당, 보수동, 용두산 등 '영화도시' 부산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명소와 드라마 촬영지 등을 주로 찾는다.

시와 관광공사는 선정된 여행사에게 우수한 상품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해외 모객광고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해당 여행사가 5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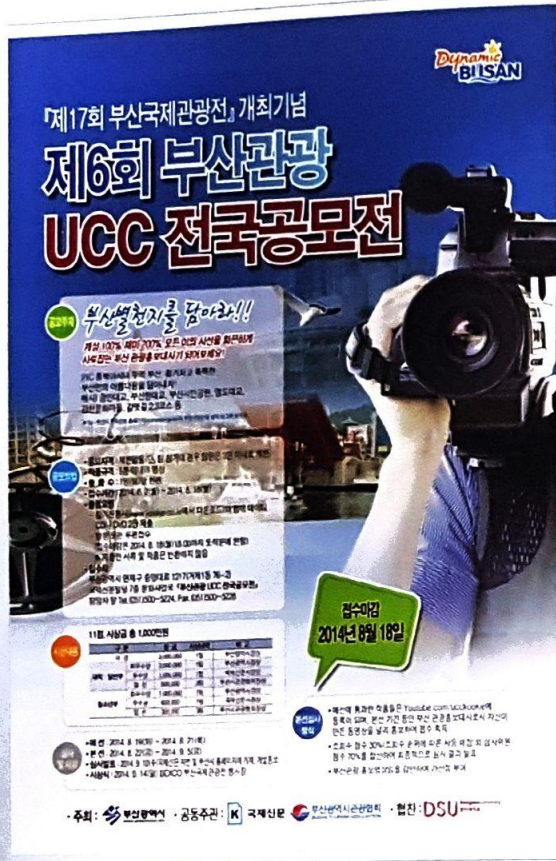
이번 공모에는 모두 7곳의 지역 여행사가 참여했으며, 우수상품 심사 기준에는 △부산 소재 1~3급 호텔에서 2박 이상 숙박 △2회 이상의 체험 △가격증 있는 가이드 투입 등이 포함됐다.

이효영 기자





#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개최기념 제6회 부산관광 UCC전국공모전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개최기념  
제6회 부산관광 UCC 전국공모전**

**부산별천지를 잡아주세요!**  
최소 100% 재미! 200%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랑스러운 부산을 담아주세요!

11월 시상금 총 1,000만원

구분	시상금	시상인원
1등	500,000원	1명
2등	300,000원	2명
3등	100,000원	5명
4등	50,000원	10명
5등	30,000원	20명
6등	20,000원	30명
7등	10,000원	50명
8등	5,000원	100명
9등	3,000원	200명
10등	2,000원	300명

**접수마감 2014년 8월 18일**

주최: 부산광역시 · 공동주최: 국제신문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협찬: DSU

부산시, 국제신문은 (사)부산시관광협회의 공동으로 '제6회 부산관광 UCC 전국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기념으로 펼쳐지는 이 공모전은 참신하고 개성있는 영상을 통해 부산지역 관광영소를 소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부산 관광 홍보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담은 영상으로 부산 관광홍보대사가 되어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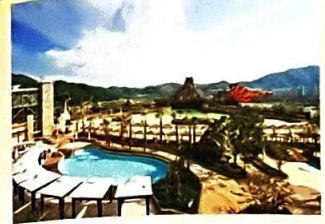


- ▶ 접수마감 : 2014년 8월 18일(월)
- ▶ 공모주제 : 부산별천지를 담아라!
  - 개성 100%, 재미 200%, 모든 이의 시선을 화끈하게 사로잡는 부산 관광홍보대사가 되어보세요!
  - 21C 동북아시아 주역 부산. 활기차고 독특한 부산만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자!
- ▶ 공모방법
  - 응모자격: 제한없음(단, 팀 참가의 경우 팀원은 3인 이내로 제한)
  - 작품규격: 5분 이내의 영상
  - 출품수: 1인(팀)당 한 편
  - 공모부문: 청소년부/대학 · 일반부
  - 시상내용: 11점, 시상금 총 1,000만원
  - ▶ 주최: 부산광역시
  - ▶ 주관: 국제신문,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 협찬: 동서대학교
  - ▶ 문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051)500-5224



**LOTTE HOTEL BUSAN**

쿨한 여름 휴가 계획  
롯데호텔부산 "쿨쿨 써머 패키지"



특급 칭찬이 필요한 호텔 패키지가 등장했다. 롯데호텔부산이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보이는 '2014 쿨쿨 써머' 패키지다. 호텔의 쿨쿨 써머 패키지는 써머, 쿨, 쿨 비치, 쿨 샤워의 네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들 패키지의 가격.

롯데워터파크의 성수기 입장권 금액만 2매에 14만6천원인데, 쿨 비치의 경우 그 입장권 2매에 디럭스 룸 숙박, 조식 2인, 엘리자베스아덴 선물력 1개를 모두 포함하고도 22만원(이하 세금 및 봉사료 제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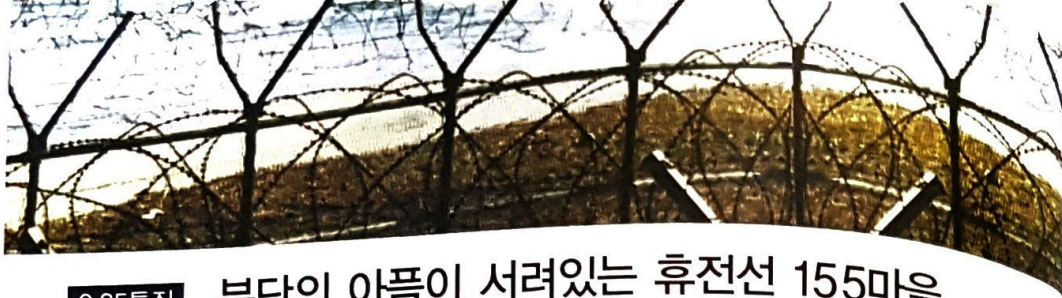
세 명이 함께하면 더 즐겁다. 쿨 비치에 4만원을 더한 쿨 샤워를 선택하면 워터파크 입장권 및 조식이 모두 3인 기준으로 제공돼,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안성맞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다음, 부산 지역 다른 곳으로 눈길을 간다면 호텔이 제공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 L.T.E ROAD를 눈여겨 보자. L.T.E ROAD는 호텔이 셔틀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투어 컨설턴트가 전 일정 함께 다니며 상세하고 워트 있는 설명을 곁들이는 관광 코스. 특별히 히트하리라 미군부대 터를 재단장해 지난날 1일 10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또한 조만간 이 체험 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 곳곳을 편리하게 둘러 볼 수 있어 L.T.E ROAD 소문을 먼저 듣고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도 많다. 워터파크 패키지 이용객 또한 1실 최대 4인까지 이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는 유선상 혹은 호텔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워터파크로의 셔틀버스 혹은 L.T.E ROAD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사전에 따로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 롯데호텔부산 051-810-1100





## 6.25특집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휴전선 155마을 DMZ, '전진 뜻밖의 여행길' 고성을 가다**

### 고성(高城)

**전우여 : 그대의 피로 물든 이곳에 마음의 표지를 세우노라**  
고성군은 강원도의 행정구역으로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 38이북지역이다. 1945년에 소련 군정영역에 편입되었으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양쪽 모두의 행정구역으로 되었다.

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오르막길을 오른다. 그제야 숨을 고르는 곳, 진부령 정상이다. 금강산~설악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간성읍의 경계,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진부령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백두지맥은 칠절봉에서 북으로 꺾여 향로봉 건봉산으로 이어지면서 향로봉산맥을 형성한다.

이곳에서 1951년부터 1953년 7월 휴전 때까지 치열한 전투가 2년 3개월 동안 한국군 3개 사단, 미군1개 군단, 북한군 5개 사단이 대치하며 16회에 걸쳐 공방전이 이어졌다. 결국 국군과 미군의 합동작전으로 승리를 거둬 거진 지구를 수복하고 동부전선 일대를 완전 장악했다. 향로봉 전투와 전봉산 전투, 46번국도 끝자락에는 그렇게 지난 전쟁의 기록이 자리하고 있다. '전우여 그대를 피로 물든 이곳에 마음의 표지를 세우노라! 그 때 향로봉과 건봉산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을 기리는 충훈비가 세워졌다. 동부전선의 거울은 9월이던 시작된다. 남쪽보다 두 달 먼저 찾아오고 두 달 늦게 물러간다.

한 겨울에는 영하 30°C까지 떨어지고 눈은 3m까지 쌓이는건 보통이다. 높이, 296m향로봉은 늘 비바람과 안개를 머리



그대의 피로 물든 이곳에 마음의 표지를 세우노라. 향로봉과 건봉산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을 기리는 충훈비

에 이고 있다. 여름에도 아전잠바를 입고 근무하는 하늘아래 첫 부대다. 1954년 1월, 향로봉 일대에 6m의 폭설이 내렸다. 막사가 무너져 59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어떤 병사는 눈 속에서 걷는 자세로 얼어 죽었다. 인제군 서화2리 당봉산공원에 가면 그 때 설화(雪禍)로 순직한 장병을 기리는 충훈비가 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것이다. 화진포 별장투어는 고성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다.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진 화진포, 일제 감시기에 는 외국 관광객이 1순위로 꼽던 휴양지였다. 때문에 아직도 근대 건축물의 흔적이 여럿 남아있다. 이순만, 김일성, 이기붕 별장도 있다. 이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이기붕 별장이다. 이 별장은 1920년대 외국인 선교사 숙소로 건축 됐는데 이후 북한군 간부 휴양소로 쓰다가 이기붕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김일성별장은 1938년에 지어 졌는데 이 건물 원래 주인은 한국에서 결핵 요양원을 세운 캐나다 선교사가 주인이었다. 회색 돌로 지은 이 건물은 뒤쪽 푸른 나무숲과 푸른 바다가 잘 어울린다. 6.25전쟁 중에는 김일성이 한국지도를 놓고 작전지

휘를 했다고 한다. 그 후 육군에서 장병휴양시설로 써 오다 지금은 화진포의 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사 안보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일성 별장과 마주한 이순만 별장은 가장 늦게 지어졌다. 1945년에 신축 됐는데 4.19혁명으로 하야하자 폐허로 철거됐는데 육군이 다시 복원했다. 냉전시대 권력자들의 별장이 한곳에 모여 있어서 그런지 화진포 별장투어는 고성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여행 관광코스다. 또 겨울연가 드라마와 영화 파이란의 촬영장

소이기도 하다.

동해안 최북단 마을 명파리 그리고 통일전망대 1984년 통일전망대가 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전망대에 오는 사람들이 명파리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북쪽 구선봉이 바라보이는 자리 명파리 주막을 치러놓고 눈물의 술잔을 올렸던 곳이다. 통일전망대에 명파리 사람들에게는 통한의 상징이었다. 351고지 전투전적비이다.

이 고지는 1951년 7월부터 휴전직전까지 무려 2년이 넘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500m도 안 되는 산봉우리를 두고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도 흔치 않을 것이다.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시작된 당시의 전선은 지금의 휴전선과 비슷하게 형성 돼 있었다. 중공군의 5월 공세를 저지, 한국군과 유엔군은 임진강 하구~연천~금화~양구~간선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격했고 10월에는 양구해안분지~향로봉~통일전망대부근~송현리까지 장악했다.

DMZ는 20세기가 남긴 냉전유적이자 분단의 반사이적으로 선을 받은 자연 문화유산이 됐다

통일전망대에서 북서쪽 10시 방향으로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월비산이다. 해발 459m에 불과 하지만 고성~통천~원산까지 이르는 7번국도와 남강일대는 관측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이 고지는 해안 저지대를 관측할 수 있어 전술상으로도 매우 중요했다. 2년간 월비산 351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군4개 사단 북한군 4개 사단이 정탈전을 벌였다. 고성군 실함민들은 이 전투를 피의사투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전적비역시 1955년 군민들이 힘을 모아 현내면 사무소 옆에 세웠다.

자신들을 대신해 고향을 찾아주고자 했던 전사자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1985년 통일전망대가 세워지면



냉전시대 권력자들의 별장 (나 김일성별장, 최이순만별장, 이이순만별장)

진 제의 통일안보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북 화해와 교류시대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하여 남북협력과 교류의 장소로 그 의미를 새롭게 할 장소가 될 것이다.

전망대 왼쪽으로 1km쯤 가면 세계에서 유일한 DMZ박물관이 2009년8월 세워졌다. 녹슨 철조망, 식은 38선 표지판, 총알류 등이 전시돼 있다. 냉전의 갈등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분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 외에도 DMZ자연생태환경 등을 전시해 놓은 공간도 있어 DMZ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북쪽 해금강, 금강산을 볼 수 있는 전망터도 있다.

DMZ 그 곳은 살아 있는 전쟁 박물관이다.

DMZ는 동서 두 진영 20여 개국 나라가 전쟁을 치렀던 곳이다. 이토록 다양한 민족, 국가가 전쟁을 한 경우는 역사상 유래가 없다. 각종무기, 전투력, 각각 다른 국민성을 가진 병사들이 벌인 전투 현장은 그 자체가 군사박물관이다. 전쟁은 끝났어도 두 진영의 최첨단 신무기들이 전시되고 있고 전략과 전술이 지금 이 시각도 벌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DMZ는 20세기가 남긴 냉전유적이자 분단의 반사이적으로 선을 받은 자연 문화유산이 됐다. 1971년 6월 유엔군 측 수석대표인 로즈소소장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다.

DMZ안에서 군사요원과 지뢰제거, 진지를 파괴하고 민간인 영농을 허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이념과 갈등을 넘어 남북통일이 올 날을 기대해 본다.

김봉오 btjbusan@hanmail.net

### 고성 DMZ 투어 Tip

고성 DMZ 투어 TIP 고성통일전망대 DMZ박물관은 민통선 지역이다. 통일안보교육원에서 출입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곳에서 10km쯤 북으로 올라가면 통일전망대가 나오고 또, 1km쯤 더 올라가면 DMZ박물관이 있다. 어른2000원, 어린이는 1000원(입장료로 내야 한다. (필요일은 휴관) 승용차는 푸안에서 동서로 순환-민체 한계성거리-46번국도-진부령으로 해서 고성으로 가면 된다. 소요시간은 8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는 동서로 터미널과 상행터미널에서 간성-거점으로 가면 3시간 정도 소요된다.





# 6.25 · 영도다리 그리고 민족음악가 채동선



장순복  
부산시 관광협회 부회장  
(대륙항공여행사 대표)



통학을 할 만큼 대부호 집안의 아들이었다. 경기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일 때 채동선을 음악에 빠져들게 만든 건 흥난파의 바이올린 독주회였다. 흥난파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던 그는 1919년 3.1 만세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왜경의 감시를 받게 되자 일본으로 떠났다. 동경 와세다대(早稻田: 조도전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오오노 타다토미(大野忠朝: 다중조)로부터 바이올린을 사사(師事)받고 일본 교향악단 단원으로 선발된 뒤 연주 여행을 다녔다. 1924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의 슈테르른음악원에서 공부하며 리하르트 할체로부터 바이올린을, 빌헬름 클라테로부터 작곡법을 지도받았다. 1929년 가을 독일에서 귀국한 뒤 11월 말 귀국 독주회를 가졌고 1939년까지 모두 4차례의 독주회를 가졌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비롯하여 12국의 민요를 편곡하고 별유천지(別有天地)를 비롯한 12국의 민요를 찾아내는 등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다.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Ideologie: 인간·자연·사회에 대해 품는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적) 혼란에 빠진 좌경음악가와 극우세력의 중간에 서서 민족주의적인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애국적 정열이 담긴 노래들을 작사, 작곡했다. 정지용의 시들은 채동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곡 12곡 중 8곡이 정지용의 시로 작곡되었다. '항수'와 '압천', '산애색시들녘사내', '다름하늘', '또 하나 다른 태양', '바다', '풍랑풍'을 잇달아 작곡했다. 율동 작가는 이유로 정지용의 시와 저서들이 금서(禁書)가 되는 바람에 '고향'을 위하여 만들었던 곡은 박희목의 '방향'. 이은상의 '그리워'로 불리우며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4년 포성이 멎은 지 올해로 61년이다. 이중섭 갤러리와 포토존 그리고 일본인 아내 아야모토 마사코(山本方子: 산본방자) 전망대가 범일동에 만들어졌듯이 영도다리 근처에 정지용의 시와 민족음악가 채동선의 음악적 만남을 주제로 하는 갤러리나 음악 카페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전쟁 임시수도 부산 1000일 문화제와 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영호남이 하나 되는 채동선음악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날을 기대해본다. 영도다리는 오늘도 민족음악가 채동선을 기다린다.

“ 영도다리 근처에 정지용의 시와 민족음악가 채동선의 음악적 만남을 주제로 하는 갤러리나 음악 카페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전쟁 임시수도 부산 1000일 문화제와 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영호남이 하나 되는 채동선음악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날을 기대해본다. 영도다리는 오늘도 민족음악가 채동선을 기다린다. ”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1950년 8월 18일부터 1953년 8월 15일까지 1000일간 부산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었던 정치적 격동과 생존이 절박했던 피난민들의 몸부림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안 될 역사의 악몽이었다. 해방 후 오갈 데 없는 일본과 만주지역의 동포를 품에 안았듯이 부산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피난민을 품에 안았다. 피난민들은 미군 아전용 식량박스, 강동을 퍼서 만든 양철판, 나무판자, 가마니 등으로 열거설기 엮은 판자집을 지었다. 이런 판자집들은 용두산 산비탈을 중심으로 영도까지 4만여 채가 지어졌다. 피난대열에 참가했던 서울과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은 궁핍하고 힘든 피난 생활 속에서도 작품 활동을 지속했다. 눈물 젖은 두안강을 불렀던 국민가수 김정구가 절망의 나날을 보냈고 소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도 생존을 위해 부두 노동자로 일하며 담뱃갑 은박지에 못으로 그린 그림들을 한 끼 식사와 맞바꾸기도 했다. "오발탄", "학마을사람들"로 유명한 소설가 이범선은 병을 앓는 지식을 위해 미군부대창고에서 약품을 훔친 후 마지막 양심의 선을 넘고야 말았으며 인간에 대해 환멸을 느꼈던 8개월간의 피난살이를 생생하게 묘사한 "나의 피난기"를 남겼다. 박희목의 시 "옛 생각"의 제목을 바꾸어 불후의 명곡 "보리밭"을 작곡했던 윤용하는 외로움과 가난에 지쳐 43살의 나이로 부산에서 세상을 떠났다.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

을 했던 밀다원, 금강다방, 태백다방, 스타다방, 릴리다방 등은 예술인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환하는 창작공간 활동이었다.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다룬 "곡예사"를 집필했던 황순원을 비롯하여 "밀다원시대"를 단편으로 남긴 김동리, "세월이 가면", "목마와 숙녀" 등의 시를 남긴 박인환, 하늘이 내린 चु꾼이라 불리우는 이매방 등 시인, 화가, 음악가, 무용가, 소설가, 국악인들은 피난살이의 시름과 허탈, 울분을 달래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족음악가 채동선 역시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했다. 기차를 이용하여 피난하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본인만 특별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가족과 함께 한 달 넘게 걸어 영도 봉래동 대한도기 옆 판자집에서 살았다. 채동선은 서울 상대, 숙명여대, 배재고등학교, 이화여고 등 전시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며 생계를 꾸리다 피난생활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영양실조와 복막염으로 1953년 2월 2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01년 6월 11일 전라남도 벌교에서 태어난 채동선은 8살 때부터 수심리나 떨어진 순천공립보통학교까지 어른들에게 업혀서



# 관광 종사자의 이미지

## 우리의 환대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관광객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우리의 서비스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소 국가대표입니다.

### 1. 따뜻한 미소 - 친절함을 표현하는 미소 짓기!

밝은 미소는 전 세계 공통의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관광객은 우리의 미소를 보고 환대를 느낍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함을 표현하는 미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미소 만들기 요령+

- 좋은 표정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
- 눈과 입이 동시에 웃도록 한다.
- 치아가 보이게 입 꼬리를 올린다.
- 밝고 환한 표정을 유지한다.

### 2. 단정한 차림새 - 신뢰감을 주는 차림새 갖추기!

우리가 하는 일에 알맞은 차림새를 갖추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환대 서비스인(人)으로서의 전문가다운 모습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단정한 차림새 갖추기 요령+

- 면이나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되었는가?
- 근무 중에 불편함이 없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했는가?
- 식사 및 흡연 후 입냄새가 나지 않는가?
- 명찰을 바르게 패용하고, 유니폼은 깨끗하고 구김이 없는가?
- 신발은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3. 관심어린 반응 - 대화의 생기를 불어넣는 반응 보이기!

관광객과 대화를 나눌 때 적절한 시기에 반응을 보이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고, 대화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관심어린 반응 보이기 요령+

- "아~", "네~", "그렇군요." 등의 언어로 표현한다.
- 고개 끄덕이기, 상황에 맞는 표정 연출, 시선 맞추기, 앞쪽으로 몸 기울이기 등의 태도로 표현한다.

### 4. 적극적 인사 - 눈을 맞추며 먼저 인사하기!

인사는 관계 형성의 기본이며,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눈을 맞추며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호감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인 인사하기 요령+

- 관광객 보다 먼저 인사한다.
- 관광객의 눈을 바라보며 일어나 인사한다.
-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건넨다.
- 형식에 따른 딱딱한 인사보다는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인사한다.

### 5. 친근한 태도 - 세심한 배려의 태도로 다가가기!

낮선 장소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다양한 문화 차이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관광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친근한 태도 만들기 요령+

-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환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먼저 다가간다.
- 사소한 행동에도 정성을 다한다.
- 목소리는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한다.
- 관광객과 대화 중에는 시계나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 상황과 상대에 맞게 정중하고 품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산관광안내 지역번호(051) / Area Code (+82-51)

## Tourist Information

*i* Just Call '1330'

- 일반전화 이용시 (By Pay Phone) : 1330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330 (예, 부산관광안내전화는 051 By Cell Phone : Area Code+1330 (eg. Busan Tourist
- 24시간 통역 서비스 가능 : 24 hour Interpretation service http://tour.busan.go.kr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동구 초량동 / 463-3111	Busan Tourist Association / Choryang 1-dong, Dong-gu
김해국제공항관광안내소(국제) / 강서구 대저2동 / 973-4607	Gimhae Airport Tourist Information Center (Int'l) / Daeseo 2-dong
김해국제공항관광안내소(국내) / 강서구 대저2동 / 973-2800	Gimhae Airport Tourist Information Center (Domestic) / Daeseo 2-dong
국제여객터미널관광안내소 / 중구 중앙동 / 465-3471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Tourist Information Center / Jung-gu
부산역관광안내소 / 동구 초량3동 / 441-6565	Busan Station Tourist Information Center / Choryang 3-dong, D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 동구 초량동 / 441-3121	Busan International &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 Choryang 3-dong, D
해운대종합관광봉사센터 / 해운대구 중1동 / 749-5700	Haeundae Tourist Information Center / Jung 1-dong, Haeundae
송정관광안내소 / 해운대구 송정동 / 749-5800	Songjeong Tourist Information Center / Songjeong-dong, Haeundae
UN기념공원안내소 / 남구 대연4동 / 652-1608	UN Memorial Cemetery Tourist Information Center / Daeyeon 4-dong
관광불편신고센터 / 연제구 연산5동 / 861-1101	Tourist Complaints Center / Yeonsan 5-dong, Yeonje-gu

# 부산교통안내 지역번호(051) / Area Code (+82-51)

## Important Transport-related Telephone Numbers

항공 Air	김해국제공항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대한항공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www.gimhae.airport.co.kr www.koreanair.com www.flyasiana.com
선박 Ferry	국제여객터미널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연안여객터미널 Coastal Ferry Terminal	www.busanferry.co.kr www.seomticket.co.kr
철도 Train	KTX 철도 (부산역 Busan Station)	www.ktx.korail.go.kr www.busanstation.co.kr
시외버스 Inter-city Bus	부산고속버스터미널 Busan Express Bus Terminal 동부시외버스터미널 Dongbu Intercity Bus Terminal 서부시외버스터미널 Intercity Bus Terminal	www.bxt.co.kr
시내교통 City Transportation	렌터카(부산자동차대여사업조합) Rent-A-Car 택시(부산택시사업조합) Taxi 시내버스(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 City Bus Office	



# 슬로시티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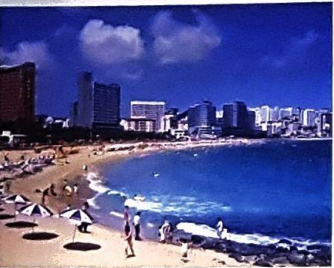
## 자갈치마켓 광장

항구도시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 3마리가 날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의 초현대식 건물 '자갈치마켓'이 자갈치의 새 명물로 부각되고 있다. 예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7856평 규모를 자랑하는 '자갈치마켓'은 1, 2층은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 광안대교(다이아몬드브리지)

총 연장 7.4km로 광역시도66호선인 광안대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부근을 잇는 국내 최대의 해상교량이다. 광안대교가 뿜내는 아찔한 아름다움과 광안대교 상층부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주변 도시의 경관도 아름답다.



## 해운대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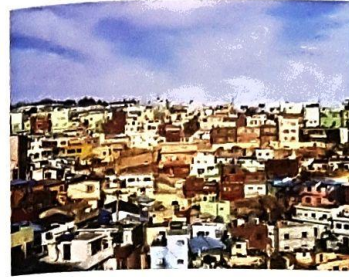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으며 맑은 수심과 잔잔한 물결로 해수욕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다.



## 범어사

범어사는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남도 3대 사찰로 한국 불교계의 중심지 중 하나다. 금정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신라 제30대 문무왕 18년(678년) 의상대사가 창건, 흥덕왕 때 중건했다.

# 테라별 코스



## 도시의 섬 감천 태극마을

감천항이 멀리 보이는 천마산 기슭에 자리잡은 감천동 태극마을은 옛 추억이 생각나게 하는 곳. 한국의 마추픽추 태극마을은 문화예술촌으로 변신,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시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연면적 4,075.15㎡, 지상 3층의 에코센터는 2007년 6월 개관하였다. 낙동강 하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상영을 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는 천연 기념물 179호 철새도래지로 지정되어 있다.



##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 - 금속, 목공예, 천연염색체험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다대동 무지개공원 기제2단지에 입주해 있는 건설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동지를 둔 예술가들의 이색 창작공간. 2600여 ㎡(818평)에 창작스튜디오, 공방, 전시공간, 숙소 등을 갖춘 곳으로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펼치고 기획전시회도 열린다.



## 아미산 전망대

벨트 사업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모래섬, 철새, 낙조 등 천혜의 낙동강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View Point에 국내외 탐방객이 즐겨찾는 낙동강하구 아미산전망대를 건립하여 2011년 2월 21일에 개관하였다.



부산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해운대코스 (1시간 40분 소요)**

부산역

부산시립박물관 ▶ 광안리해수욕장 ▶ 누리마루하우스 ▶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코스 (1시간 40분 소요)

부산역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곳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장병의 전사한 명령을 안치한 곳이다.

11개 전시실을 갖추고 비엔날레와 해외미술전 등을 개최한다.

정자를 본떠 만들었으며 국제회의 시설의 대명사가 되었다.

대포동

부산시립박물관 ◀ 광안대교 ◀ 부산시립미술관(백스코) ◀ 신세계·롯데백화점

**태종대코스 (1시간 40분 소요)**

부산역

연안여객터미널 ▶ 75광장 ▶ 태종대 ▶ 국제크루즈터미널

태종대코스 (1시간 40분 소요)

부산역

막 잡이온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종합시장이다.

국제시장 부산의 상징적인 곳으로 650여업체, 1500여 점포가 미로처럼 얽혀 있다.

한국에서 처음 개발된 해수욕장으로 환상적인 해변 분위기가 일품이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기암괴석들이 빛어내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자갈치시장

BIFF광장

송도해수욕장

남항대교

**도심순환코스 (1시간 30분 소요)**

부산역

골드테마거리 ▶ 서면(피에스타) ▶ 서면 북개로 ▶

도심순환코스 (1시간 30분 소요)

부산역

서면 에디컬스트리트 국내 최대 의료전문지역으로 의료·미용·쇼핑 등 맞춤형 관광이 가능하다.

120m의 부산타워와 매년 1월 1일에 타종식을 거행하는 부산 시민의 품이 있다.

자갈치시장

광복로(응두산공원)

좌천동 가구거리

부산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을숙도 자연생태코스 (3시간 40분 소요)**

부산역

영도대교 ▶ 남항대교 ▶ 송도해수욕장 ▶

을숙도 자연생태코스 (3시간 40분 소요)

부산역

낙동강 하구의 역사와 생성과정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다.

기암괴석과 수려한 모래해안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따뜻한 수온과 맑은 수심 등 휴양지로 최상의 환경이다.

스나루 숲 사설로 바다로 보이는 바다풍경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공원이자.

을숙도자연생태센터

아미산전망대

다대포해수욕장

물온대

**야경투어코스 (2시간 30분 소요)**

부산역

광안리 ▶ 해운대 ▶ 달맞이교 ▶

야경투어코스 (2시간 30분 소요)

부산역

젊은 열정이 넘치는 해변으로 부산불꽃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 등 국내 제일의 해수욕장이다.

요양별,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연출하며 주변의 바다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운대·송정로 향하는 모습길로 물이면 이곳이 환상적이다.

자갈치시장

금련산

광안대교

부산시티투어 이용안내

출발지 부산역광장 아리랑관광호텔 (도시철도 1호선 - 부산역 8번출구, 기차 - 부산역 1번 입구)

탑승요금 어른 10,000원 / 어린이 5,000원

운행안내 연중 운행, 공휴일 정상운행(월요일 휴무)







HOTEL PHOENIX



대연회장



스위트룸



웨딩홀



웨스턴스타일식당



피닉스호텔 BUSAN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8-1번지  
Tel. 051)245-8061~9 Fax. 051)241-1523



즐거운 여행은 시티투어와 함께 하세요~

생생한 여행정보 및 예약서비스를 여행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City Tour  
City Tour Express Tour Service



시티투어 상품 안내



여운대 돌담 (9시 30분)

기장 역동용궁사

강연대교 (9시)

UN기념공원

대중대

강동역 (9시 30분)  
(10시 30분)

### 단독 맞춤투어

- 45인승 / 28인승 / 25인승 버스 · 12인승 / 15인승 봉고 승합차
- 각종 기업체, 현장학습, 수학여행, 기타 단체활동 전세버스 상담문의



#### 부산시티투어

(9시 30분 출발) ● 대인 22,000원 소인 20,000원  
해운대-해동용궁사-UN기념공원-태종대-자갈치-부산역-해운대



#### 부산시티야경코스

(9시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기차교-전경대-해운대-UN기념공원-자갈치-부산역-해운대



#### 부산문화감천마을코스

(10시 20분 출발) ● 대인 22,000원 소인 20,000원  
해운대-용두산공원-경도다리(도개식)-태종대-김천문화마을-자갈치-해운대



#### 외도/동영케이블카코스

(7시 30분 출발) ● 대인 66,000원 소인 62,000원  
해운대-기차교-전경대-해운대-UN기념공원-자갈치-부산역-해운대



#### 태종대코스

(11시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UN기념공원-태종대-자갈치-부산역-해운대



#### 장사도/동영케이블카코스

(7시 30분 출발) ● 대인 66,000원 소인 62,000원  
해운대-기차교-전경대-해운대-UN기념공원-자갈치-부산역-해운대



#### 용궁사코스

(11시 30분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해동용궁사-동백섬-자갈치-부산역-해운대



\* 도착시간 7시 30분과 동일  
\* 참가자들은 현지 사정에 의해 차량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소인원 10명 이상입니다.

KTX와 함께하는 서울밤도깨비 여행 대한민국 소풍 메카, 동대문시장과 보대문시장 방문과 야간 쇼핑을  
요금 68,000원 부터 - 일정: 부산역-서울역-동대문시장(보대문역)이동-동대문시장, 보대문시장 쇼핑-서울역으로 이동-부산역

\* 차량내의 촬영가능, 여행사내의 상품전시, 동대문역 1000호는 11월 25일 휴업, 서울역에서 1000호는 11월 25일 휴업, 서울역에서 1000호는 11월 25일 휴업



예약문의 051-468-1113~4

www.citytourbusan.co.kr





# 내 생애 최고의 여행!

##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92